

불자 세상보기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노벨상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과학연구 평가의 기준이 노벨상만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사회가 매년 소동에 가까운 많은 관심을 지니고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결핍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노벨과학상의 수상은 그 연구 업적이나 연구 분야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의미하기에 학계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주목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역대 정권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에 대하여 의도를 지니고 지원한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황스캔달(Hwang Scandal)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표적 과학 사기사건인 2005년도의 배아줄기세포 사태 때 보여준 참여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 역시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G20 국가 가운데 노벨

과학상을 수상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즉시 '노벨과학상 수상 프로젝트'라는 대국민 홍보용 행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국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인 일본의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 개인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말해준다. 한 나라의 과학수준이란 특정 몇몇 과학자를 낸 여러 나라를 보면 분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식 학문의 바탕을 지닌 일본과 2차 대전 이후 국제 과학계를 이끈 미국은 각기 장단점은 다르지만 자신들 나름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속에 고유한 학문 풍토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강제적으로 형성된 배경을 바탕으로 해방 후 급격히 유입된 미국식 제도의 표면적 이식이 자리 잡았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과학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더욱이 군사독재 시절의

관주도 풍토에서 교육과 연구 모두에 정치적 요소의 개입이 현저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연구체계는 일본과 미국, 두 과학문화의 단점만 모아놓은 형태다. 더욱이 최근 무한경쟁과 산학협동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명목으로 특정한 학문적, 재정적 기반도 없이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고등교육의 민영화 개혁과 더불어 1년 단위의 연구자 논문 숫자 평가는 학문 연구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과학연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우매함이 불행히도 우리 자신과 불교계 내부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연구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떠어 살릴 수 있는 막대한 국익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 우위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 속의 세상을 구원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길거리로 나섰던 우리 불교인들이 외쳤던 것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였다. 물론 그 연구 자체가 이미 국제적 과학사기 사건으로 밝혀진 셈이지만, 설령 당시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었다 해도 이번 노벨상 수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명윤리적 문제점도 포함해 그 기술이 약속했던 많은 부분은 유도만능

줄기세포 연구로 대체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종교적 가치마저 있고 국익과 경쟁우위라는 신자유주의적 구호 속에 길거리로 나섰던 우리 불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는 과학기술과 시대나 문화를 떠나 존중되는 불교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과학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 때의 특정 과학기술에 대하여 당장 무언가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과학을 전혀 모르는 이들의 모습이다.

특정사회가 과학을 접하는 태도와 과학연구자들의 자세는 그 나라 과학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유도만능줄기세포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자는 인터넷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미 국내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각종 줄기세포 치료나 관련 제품의 유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과도한 선전과 믿음은 우리사회와 학계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듯해서 불교신자이자 과학자로서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노벨상과 우리의 모습

社說

불교계, 세종시 강건너 불

제2 행정수도, 세종시 시대가 열렸다. 총리실 산하 6개 부서가 9월 14일과 15일 입주했으며,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세종시로 가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모두 36곳으로 서울에는 입법부, 사법부, 외교부 등 5개 부처만 남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보면 서울-경기-충청을 잇는 거대한 포교 벨트가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종시의 현 상황은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의 지난 8월 종교용지 41필지를 분양했고 현재는 13필지가 분양됐다. 하지만 불교는 어느 한 곳도 분양받지 못했다. 현재 13필지 중 8필지는 개신교 단체가 일반 개인이 3필지, 천주교 1필지, 원불교 1필지를 입찰을 통해 분양받았다. 그나마 9월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미 서울·경기나 신도시 개발 지역 종교 용지에 불교는 없다. 대부분 공개입찰로 진행돼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개신교계에서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물론 종단의 관심 부족도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 포교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모두 '자업자득'의 결과다.

제2수도 세종시가 위와 같은 전처를 받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개신교단들은 세종시에 개척 교회들 짓겠다고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인근 교구본사 관계자들은 총무원에 '전범회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말로만 신도시 포교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격정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

스님들의 불적 답사 연수교육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남산은 말 그대로 성묘문화재들의 보고다. 산 곳곳에 147개의 절터와 120여 구의 불상, 99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이 신라의 1천년 역사를 간직한 채 산재해 있다.

지난 10월 6일 조계종 77명의 스님들이 불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이곳을 찾았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2 하반기 연수로 실시한 '경주 남산 불적 답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서남산서 출발한 스님들은 초입의 삼릉(三陵)을 거쳐 뱀골 석조여래좌상, 일명 불두 없는 여래좌상을 만났다. 바로 위에 있는 마애관음보살입상도 친견했다. 그곳서 100m가량 걸어가 마애선각육존불도 봤다. 스님들은 모든 불상을 만날 때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예를 표했다. 또한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필기하거나 녹음하며 답사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이날 불적답사는 염불사지와 남산동 쌍당을 끝으로 경주 남산을 동서로 종주하며 마무리됐다. 그 길이로만 10여 km에 달한 강

행군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없이 성실히 답사에 임했다. 새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참가 스님들에게 높은 만족도로 다가왔다. 특히 전문 강사의 설명 들으며, 경주 남산을 둘러볼 수 있었다는 데 스님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사실 여태까지의 대다수 스님들의 연수는 실내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다. 여기서 탈피해 대안으로 기획된 것이 바로 이번 답사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님들이 처음으로 국내 불교유적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스님들은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이를 자신의 삶과 수행에 투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리라 본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장 교육이 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향후 교육원도 이번 교육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보완해 다양한 답사 코스를 개발, 연수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불교문화유산도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또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연구센터 교수

조선왕조 5백 년 동안 한국불교는 불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억압으로 쇠락을 거듭한다. 조선의 불교 억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인 장치들 통해서 불교가 사회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승려의 공식적인 배출통로인 도점제를 폐지했고,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하였으며, 도성을 비롯한 읍성 지역에 있던 사찰들은 대부분 폐사시켰다. 승려들이 사회에 접근할 통로를 모두 막아버린 것이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쇠락을 거듭하던 조선전기 불교는 150여 년만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조선의 지배층이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중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의 약자에서 그 길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승려들이 스스로 찾아내었던 생존의 첫 번째 장치는 '계(契)'이다. 갑

계(契契)를 비롯한 어산계(魚山契)·미타계(彌陀契)·도종계(都宗契) 등 다양한 종류의 계(契) 모임이 승려사회에서 출현했고, 그것은 무너져 내리던 사찰의 보수와 승가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기능했다. 사명당 유정의 <갑화문(甲畵文)>은 이미 임진왜란 전에 그러한 생존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길은 불교의 외연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는데, 사회의 약자였던 조선의 민중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한글로 된 불교가사이다.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하는 '회심곡'이나 '백발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조선중기, 새로운 외연이 필요했던, 지배층으로부터 억압당하면서도 중생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조선승려들의 가슴에서 출현하여, 민중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것들이다.

스스로의 자존(自存)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회와 함께 호흡한다. 그것이 억압당하던 조선불교의 생존법이었다. 임진·병자 양란에 수많은 의승군을 동원

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고, 5백년의 제도적 폭압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원천이기도 했다. 스스로의 자존을 위한 장치의 계발, 중생 없는 불교는 없다는 철저한 자기인식, 그러한 것들이 조선 불교가 수난의 5백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보자. 자존의 노력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중생과 한몸이라는 원천적인 존재 인식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급격하게 서구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무엇을 가지고서 자존을 찾고, 무엇을 가지고서 중생을 고민했는가. 언제부터인가 불교지성들과 대중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호흡하는 장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함께 하는 장에서조차 신심으로 부른 가슴을 내미는 불자대중들에게 냉철한 이성의 불교만을 요구하는 불교지성 역시 적지 않다. 불교라는 고매한 이상적 철학체계 관념의 체계는 존재해도, 대중들의 가슴에서 비롯되는 신심(信心)을 함께 호흡하는 불교지성은 찾기 힘들다.

7-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장에서 대중들과 함께 하는 불교를 고민했던 선각자들에서 비롯되는 도심 포교의 현장들은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생존법이다. 이 시대 중생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거센 회오리 속에 있었다. 산업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심숙으로 들어가서 않고서야 중생들과 함께 호흡할 방법이 없었다. 전통을 도심 속에서 산업현장에서 되살린다는, 거기에서 중생을 만나는 의식이 그나마 한국불교의 현재를 가능하게 했다.

잡설의 불광사나, 부천의 석왕사는 그런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들 도심사찰의 현재는 당대의 불교선각자들이 가슴으로 중생을 고민한 결과이다. 산중의 한적함만으로는, 이성적인 불교철학만으로는 이 시대 중생들의 고민에 답하는데 한계가 있다. 2-30년 앞서서 도심의 중생, 산업현장의 중생들과 호흡했던 사찰들이 경기 침체의 외풍에도 험사리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한국불교의 오늘에 대한 중생의 답변일 것이다. 당대 중생의 자화상을 고민하지 않고서야 어찌 불교가 존재한다고 말이나 꺼낼 수 있을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리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정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